

멧덴 침착한 위기관리... 타자들 뜨거운 타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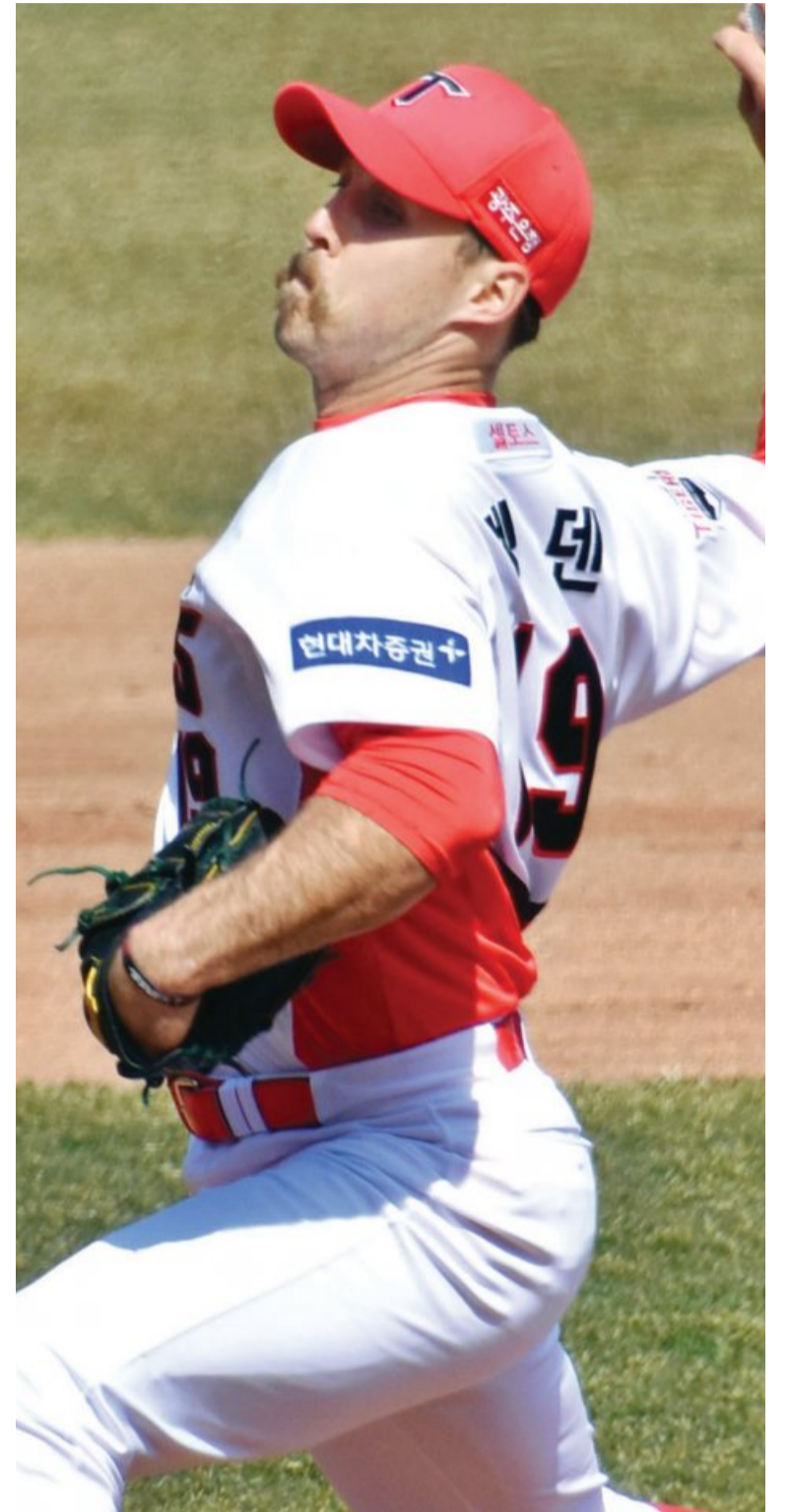
이정훈

NC전 11-1 대승... 멧덴, 제구 아쉬움에도 4.2이닝 1실점 호투
포수 이정훈 3점포 '눈길'... 박찬호, 도루·안타 등 공·수 활약
류지혁·최정민 멀티히트... 내일부터 롯데-키움-KT와 홈 6연전



‘호랑이 군단’의 포수 이정훈이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가며 안방에 불을 지폈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1-1 대승으로 연승에 성공했다. 선발 멧덴이 4.2이닝 4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마운드를 지킨 가운데 1회부터 이정훈의 스티어링이 터지면서 일찍 승기를 잡았다. 전날 최형우의 대타로 나와 중전안타, 볼넷, 좌중간 2루타를 기록했던 이정훈은 이날 7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1사에서 박찬호의 좌전안타를 시작으로 류지혁, 황대인, 오순우가 NC 선발 김영규를 상대로 연달아 안타를 뽑아내 2점을 만들었다. 김호영의 중견수 플라이로 안타 행진이 멈췄지만 이어진 타석에서 이정훈이 우측 담장 밖으로 공을 날리면서 주자를 모두 지켰다. 5-0으로 앞선 3회초 다시 한번 이정훈이 타점을 올렸다. 2사에서 김호영이 중전안타로 출루했고, 이정훈이 이번에는 중야를 뚫는 2루타를 날리며 타점을 보냈다. 이정훈과 함께 박찬호, 류지혁, 최정민도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과시했다. 특히 박찬호는 공·수에서 만점활약을 하며 멧덴의 첫 시범경기 등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1회 1사에서 좌전안타로 팀의 첫 안타를 장식한 박찬호는 2회초 2사에서 중전안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이어 2루 도루까지 성공했다. 2회말 수비에서도 박찬호에 시선이 쏠렸다. 멧덴이 1사에서 강진성과 풀카운트 승부를 했다. 그리고 강진성의 타구가 빠르게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뚫는 것 같았지만 몸을 날린 박찬호가 공을 낚아채면서 안타를 직선타로 바꿨다. 한편 지난 18일 KT와의 연습경기에 이어 두 번째 실전에 나선 멧덴의 창끝은 아직 무딘 모습이었다. 멧덴은 1회말 선두타자 박민우의 땅볼을 1루수에게 건네받아 원아웃을 만들었지만, 9구 승부 끝에 이명기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나성범과 권희동을 각각 삼진과 3루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실점은 하지 않았다. 2회 2사에서 김찬형에게 첫 안타를 내준 멧덴은 지석훈의 3루 땅볼로 더 이상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3회 첫 삼자범퇴를 기록한 멧덴은 4회 2사에서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알테어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고, 좌익수의 포구 실책이 겹쳐 무사 2루가 됐다. 이어 보크를 범하면서 알테어가 3루까지 향했다. 안타, 실책, 보크에 흔들린 멧덴은 강진성의 좌전안타로 실점을 했다. 5회 출발도 좋지 않았다. 선두타자 지석훈에게 좌전안타를 내준 뒤 정범모에게 볼 4개를 연달아 던졌다. 그러자 정명원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분위기를 끊었다. 이어 멧덴은 좌익수플라이와 삼진으로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추가한 뒤 4.2이닝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위기관리 능력은 보여줬지만 자신의 장점인 제구가 완벽하지 않았다. 볼펜에서는 연투에 나선 ‘마무리 후보’ 박준표가 눈에 띄었다. 전날 5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던 박준표는 11-1로 크게 앞선 9회말 등판해 8개 공으로 9회를 정리했다. 또 다른 마무리 후보 정재영도 12개의 공으로 1.2이닝을 책임졌다. KIA는 24일 휴식일을 보낸 뒤 25일부터 롯데-키움-KT와 홈 6연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멧덴

벤투호 빈약한 허리, 이강인이 살린다



이강인

내일 일본과 80번째 한일전
손흥민·황의조 등 주력 선수 불참
패스 열어줄 미드필더 라인 취약
이강인, 중원 지휘할 가능성 ↑

황인범(루빈 카잔)과 윤빛가람(울산)이 모두 빠지면서 빈약해진 벤투호의 중원을 책임질 적임자로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발렌시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일본 대표팀과 통산 80번째 숙명의 한일전에 나선다. 한국은 지난 79차례 맞대결에서 42승 23무 14패로 월등하게 앞서 있다. 최근 대결에서는 2연승에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다. 지난 3경기 동안 한국은 6골을 넣고 2골을 내줬다. 이번 80번째 한일전은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간판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와 '황소' 황희찬(라이프치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차출되지 못했다. 윤빛가람(종이리 부상), 엄원상(광주-무릎 인대 부상), 주세종(감바 오사카-코로나19 확진)도 빠졌다.

주력 선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벤투호는 사실상 2군에 가까운 전력을 갖추고 부담스러운 한일전을 치르게 됐다. 특히 일본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벤투호는 방역 수칙까지 준수하며 경기를 준비하는 이중고도 견뎌내야 한다. 한일전에 나서는 벤투호의 취약 포지션은 '패스 길'을 열어줄 미드필더 라인이다. 벤투호는 한일전에 대비해 '중원의 조율사'로 주세종(A매치 28경기), 윤빛가람(A매치 15경기), 이강인(A매치 5경기)을 발탁했다. 하지만 주세종과 윤빛가람이 대표팀에서 하차하면서 '중원의 사령관' 중책은 이강인이 맡을 공산이 커졌다. 이강인은 이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피' 미드필더로 한국 축구를 이끌 차세대 스타다. 투톱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번갈아 맡는 이강인은 뛰어난 탈압박 능력과 정확한 '킬러 패스'를 앞세워 팀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득점은 없지만 4도움

을 기록 중이다. 이강인은 지난달 22일 셀타 비고와의 2020-2021 라리가 24라운드에서 투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것만 오히려 정확한 패스로 결승골을 배달하며 '중원 해결사'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이강인의 패스 정확도는 86.8%였고, 드리블도 10차례나 시도하며 '패스 시범점' 역할도 충실히 했다. 현재 전력에서 벤투 감독은 정우영(알사드)과 이강인을 중원에 놓을 공산이 크다. 최전방에는 이정협(경남)과 나상호(서울)를 가동하고, 좌우 날개에 스피드를 앞세운 김인성과 이동준(이상 울산)을 배치해 상대 측면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K리그 무대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김인성은 3골, 이동준은 2골 1도움으로 순도 높은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앙 수비는 원두재(울산)와 김영권(감바 오사카)이 맡고, 좌우 풀백은 경협이 많은 박주호(수원FC)와 김태환(울산)이 예상된다. 골키퍼는 조현우(울산)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레클레르크 이탈, 양현종엔 기회?

텍사스 주축 불펜투수... 팔꿈치 통증에 엔트리 합류 불투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주축 불펜 투수 호세 레클레르크(28)가 부상으로 이탈했다. MLB 개막 엔트리 진입을 노리는 양현종(33)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크리스 영 텍사스 단장은 23일(한국시간) 현지 매체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레클레르크가 최근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정밀 검진을 받는다"며 "재활 기간은 검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레클레르크의 개막 엔트리 포함 가능성은 작다. 영 단장은 "레클레르크가 통증을 호소한 뒤 트레이닝 코치들이 상태를 살펴봤는데, 아마 장기간 공을 던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클레르크는 텍사스의 핵심 불펜이다.

2018년과 2019년에 두 자릿수 세이브를 올리며 뒷문을 막았다. 지난해엔 어깨 부상으로 2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건강하게 복귀해 기대를 높였다. 유력한 마무리 후보였던 레클레르크의 이탈로 텍사스는 비상이 걸렸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이날 "맷 부시와 이언 케네디가 레클레르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명의 투수가 마무리 역할을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레클레르크 외에도 조너선 에르난데스 등 주축 불펜 투수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했다. 빅리그 진입을 노리는 양현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 사무엘·올렉 K리그2 4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사무엘과 올렉이 4라운드 베스트 11에 등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K리그2 2021 4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남의 새 외국인 선수 사무엘과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올렉이 각각 미드필더, 수비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부천FC와의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90분을 모두 소화하면서 팀의 1-1 무승부에 기여했다. 이날 전남은 전반 25분 박창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9분 '캡틴' 이종호의 마수결이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왼쪽에서 사무엘이 날린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흐르자 중앙에 있던 이종호가 공을 잡아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추가득점 없이 경기가 끝나면서 전남의 올 시즌 성적은 1승 3무(승점 6)가 됐다.



사무엘

올렉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은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30분 안방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올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